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국정이 농단당해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놓이자, 깨어 있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난 대통령을 탄핵으로 하야시켰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이른바 '촛불 정권'으로 당연히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냈어야 했다. 물론 정부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갖은 애를 쓰면서 촛불 정신 구현에 노력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에 흡족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를 이해해 주어야 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폐 청산이 촛불 정신의 큰 축이었다면, 기득권이 적폐 세력의 완강한 저항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인임이 분명했다. 땅 투기 세력이나 토건 세력의 발호를 막지 못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여 민심이 이반되게 했던 정부의 잘못도 큰 장애 요인의 하나였다.
어쨌든 현 정부는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촛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 해도 촛불 정신이다. 촛불 정신과 촛불 혁명은 완성되지는 못했으나 결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계승되어야 할 촛불은

'촛불 정신'은 이어져야 한다

계속 견 상태로 이어 가고 전해서, 언젠가 완성할 그날을 기약해야 한다. 현 정부가 이룩한 촛불 정신이야 당연히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지만, 아직 이룩하지 못한 모든 분야의 적폐 청산과 정치·사회·경제의 개혁은 지속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 변혁의 대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촛불 정신의 구현으로 촛불 혁명을 완수할 것이냐, 아니면 적폐 세력이 다시 권력을 쥐고 촛불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촛불 정신을 압축해 보면, '사람은 사람답게, 나라는 나라답게'라는 말에 합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주장인 '사람은 사람답지 않게 되고, 나라는 나라답지 않게 되는 일'(人不人而國不國矣, '흠흠신서')은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사람 고르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골라서 후회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들 중에서 과연 누가 촛불을 계승하고 이어 가서 촛불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각 후보들의 이력은 물론 그동안 제시된 공약이나 말들을 제대로 분석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사람다운 사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분단 장사나 벌이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거나, 언론 개혁·검찰 개혁에 장애가 되는 반개혁적 언행을 일삼는 후보라면, 촛불 정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라는 인류의 대재앙 앞에서 우리나라도 자

유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대재앙을 가능한 빨리 극복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바로잡아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입으로야 하지 못할 말이 없고 거짓을 과장되게 말해서 국민을 선동하기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했던 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며, 거짓으로 선동된 내용은 반드시 탄로나기 마련이다.
실천 가능한 말을 통해서 정직한 말로 국민을 설득하는 후보자를 골라야 한다. 국민은 일시적으로 현혹될 수 있어도 끝까지 현혹당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런 지혜를 지닌 국민이 많다고 믿는다. 국민은 어리석게 보여도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하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하늘의 뜻에 따르는 지도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5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인 만큼, 가볍고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선진국에 들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냐 어떤 예전으로 돌아가 또다시 국정 농단에 시달리고 부정부패에 진저리나던 세상을 계속해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내 한 표에 국운이 걸려 있고,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시대나 역사적 전환점이 걸려 있다. 모두가 투표소에 가서 그야말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어떻게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이며 어떻게 타오르게 한 촛불이던가. 촛불이 활활 더 타올라 혁명이 완성될 미래를 위해서, 바르고 정당하게 투표해야 한다. 촛불 정신을 살리고 또한 지속시키는 국민만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조선대학교 외래교수

학교 운동장의 축제 마당. 날은 맑고 하늘엔 만국기가 펄럭인다. 운동장 가운데 마련된 축제 무대는 커다란 달팽이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 웃고 있는 달팽이는 색채도 표정도 날아갈 듯 가볍다. 쿵쿵,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에 덩달아 신이 난 것 같다. 여학생 한 명이 무대 위로 오른다.
무대 위의 여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머리를 짓고 어깨를 들썩이며 팔다리를 까불대고, 그리고 온몸을 요동한다. 무대 아래서도 뜨거운 함성이 터진다. 춤은 더욱 격렬해진다. 하,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저토록 강렬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
쏟아지는 음악에 어깨가 들썩인다. 쿵쿵쿵쿵 심장이 울린다. 햇살도 푸르게 출렁인다. 난데없이 목이 멘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춤추는 저 애의 몸짓은 더없이 발랄한데 나는 왜 목이 매어 오는 것일까. 눈에는 눈물까지 차오른다.
빠르게 비슷한 기억이 스친다. 시내 백화점에 갔을 때였다. 음악 소리가 요란했다. 소리의 출처는 정문 쪽에 마련된 특별 무대. '○○사단 신인 발골 오디션'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관객도 겹겹을 이루었다. 무대

춤을 추는 이유

위로 호명된 아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인 듯했다. 그들은 자신의 춤과 노래, '까'와 재량을 한껏 뽐내는 중이었다.
나는 한참을 구경하며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춤을 마주한 순간 뭔가 몽클해지는 것이 있었다. 뭘까? 이 돌연한 느낌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도 같고 몽클하게 아픈 것 같기도 한, 흐뭇하기도 하고 기꺼운 것도 같은 이 야릇한 것은 대체 뭘지?
다시 축제 마당. 무대는 숫제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인다. 운동장이 들썩이고 교실이 덩실거린다. 달팽이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춤꾼도 관객도, 무대 위도 무대 아래도 흥건하게 취해 있다. 모두가 신나는 댄스파티 한마당.
이윽고, 격렬한 춤사위도 멈추고 음악도 잦아들었다. 무대 위엔 다음 팀이 올라와 있고, 나는 예의 감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에 바로 전 그 아이가 내 옆을 지나간다. 머리칼이 젖어 있다. 흠, 땀냄새가 끼쳐 온다. 나는 문득 그에게 묻고 싶다. 그토록 격렬하게 너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나.
그런 적이 또 있었다. 전위무용가 H의 글을 읽을 때였다. 나는 만삭이었고 두 번째 아이였다. 피로와 우울, 알 수 없는 허기로 나를 병자하고 있을 때, 그때 그녀를 읽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제 존재에 열중했다. 스물일곱에 영문학도에서 무용학도으로 변신, 서른셋에 세계 전위무용의 본산인 뉴욕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노래 부르려고 하는가? 그러나 그대 자신이 노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삶의 필필 끓는 에너지가 그대를 통해서 노래로 흘러나오게 하라. 춤추고자 하는가? 그러나 그대 자신이 춤추서는 결코 안 된다. 삶의, 이 야생

의 에너지가 그대를 통해서 춤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숫구치는 생의 의지를 따라 마음껏 춤을 추었다. 그러나 무용가로서 성공의 절정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인도로 떠났다. 수행자의 길이라는 또 다른 삶이었다.
나는 그녀가 부러웠다. 그 끝없는 갈구와 몰입과 열정... 나는 그녀가 쏟아 놓은 것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래, 놓치지 않아야지, 나를 놓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들이 내게로 건너온 듯 새로운 열망에 몸을 떨곤 하였다.
지금 여기 이 운동장, 나는 저 역동하는 리듬에 '나'를 맡기고 있다. 간질간질, 온몸을 흔들고 싶은 욕망으로 속에서는 연신 뜨거운 것이 일어난다. 내 몸이 움직이고 덩달아 마음이 움직인다. 몸과 마음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 해방감이 밀려온다. 되는 대로 흔들여 볼품은 없어도 그게 뭐 어머냐.
춤, 그것은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몸의 움직임이다. 모든 생명체는 움직임으로써 서로 신호를 보내고 소통하고 나누고 협력하며 살아간다. 나를 표현하고 세상과 만나는 것도 모두 움직임으로써 일어나는 생명의 몸짓이고 자연의 리듬일 터. 말하지 못한 살아 있음의 자기표현이고 존재의 향유이며 더 역동적인 자기 창출이 아닐까. 삶을 살도 그저 맛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제대로' 살아 보려는 것, 그리하여 제 존재적 혹은 자유를 찾는 것 말이다.
내 몸이 자꾸 들썩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흔들 흔들 격렬하게 움직이으로써 '나'를 느껴 보고 싶어서. 더욱 살아 생동하고 싶어서...

꿈꾸는 2040



오태화
위민연구원 이사

우리는 민족이 겪어온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찬란한 때를 통과하고 있다. 삶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고민하는 시대. 부의 재분배라는 시대적 과제는 남아있지만, 부의 총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시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기술 연결이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시대. 그러나 이렇게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하다. 필자는 이 공허함의 근원을 교육 현장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길을 걸어가면 청소년들과 학생들을 보면 '몽당연필'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쓸 만큼 다 써서 닳아져 버린 몽당연필이 이들의 처진 어깨 뒤로 보인다. 삶의 모든 즐거움을 상실해 버린 듯한 휘적거리는 걸음이 마치 스스로의 일인 양 마음이 아리다. 과도한 무한 경쟁 체제가 낳은 자조적 패배주의가 걸어가며 주고받는 농담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한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과 학생들은 교육 현장 속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배운다. '나'를 채 알기도 전에 줄

'몽당연필 교육' 시대를 넘어

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한 '남'의 삶을 먼저 배운다. 또한, 세상에 한 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입시에서, 취업 경쟁에서 한 번 이상의 패배를 경험하거나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세대를 관통하는 자조적 패배주의의 뿌리가 된다.
교실은 평준화의 이름으로 잠들었고, 질문은 효율성의 이름으로 상실되었다. 수시의 확대는 교육 귀족의 국가 귀족화를 촉발시켰고, 이어진 정시의 확대는 변별력의 심각한 추락을 야기했다. 그 속에서 터져 나온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당사자인 개인의 악마화 외에는 아무런 체계 개선을 기대하지 못한 채 거져졌다.
그렇다면 이 체계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비극의 시작이 '대안 없는 악마화와 교육의 고립화'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교육계 스스로가 만들어갔던 것은 아닐지라도 교육외 부처의 교육 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야기했다. 시험지 유출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도, 표창장 위조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 교육적 문제를 야기한 사건이 표출되었을 때도 우리 사회는 물론 그 개인의 악마화에만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은 전문적 정책 분야의 하나로 남아 여전히 고고하게 고립되어 갔다.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급급했던 정치권의 태도도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였다. 만일 위에 언급했던 모든 문제가 실제로 존재했던들 그것이 비단 그들 개인만의 문제였는가? 그렇다

면 이와 같은 부정 이익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는 왜 여론의 중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는가? 정치권은 자신을 세력의 이익 확보에 급급했고, 여론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조리 당사자인 개인들에게 퍼부어대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교육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질을 주장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선량한 일반 시민'을 길러 내는 교육의 지평을 열어 가야 한다. 교육의 지나친 정치화도 경계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권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는 순간 대안 제시는 사라지고 개인의 비극적 악마화만이 되돌아올 뿐이다. '성공의 절대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사고를 함께 가르쳐야만 한다. 취업과 입시 위주로 개인의 성공을 재단하고, 이것을 수치화하고 순위화하는 교육의 결과 주지도 줄여 나가야 한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전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자조적 패배주의의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거기마다 넘쳐 나는 '몽당연필 교육'의 시대를 이제는 뛰어넘어야 한다. 그 대신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성공을 거머쥐는 '모두의 승리 시대'를 열어 가자. 혐오와 조롱과 악마화의 무기를 던져 버리고, 신뢰와 화해와 대안 제시의 새로운 교육 시대를 열어 가자.

社說

'동상이몽' 야권 단일화 끝내 물 건너가나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남지 않으므로 다
가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등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다. 윤 후보
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단일화 결렬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다
만 윤 후보는 "야권 통합 노력을 이어 가
겠다"고 덧붙여 막판 단일화 불씨를 살려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벌여 온 단
일화 협상 과정도 공개했다. 양측 전권 대
리인인 장제원(윤석열 측)·이태규 의원
(안철수 측)이 전날과 이날 새벽까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해 후보 회동 일정 조율
만 남은 상태였지만 단일화 결렬을 통보
받았다는 게 윤 후보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이어 두 후보의 회동 일정 조
율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저녁에 원주 철

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달라는 안 후보
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안 후보 자택을 방
문해 정중한 태도를 보여 드리겠다고 전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고 안 후보가 목포로 출발했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그럼에도 단일화 협상 노력
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금이
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
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
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흥금을 터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안 후보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해 온 안 후보가 이에 화답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경선을 하
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 막판 최대 변수였던
단일화의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 흑시 성사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의 '무안공항 활성화' 공약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안
국제공항을 아시아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옛그же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 인수 후
10년 내 국제선 26개 노선에서 슬롯(Slot)
)과 운수권 이전 등의 구조조정 결정이 내
려지면서 국내 항공운송업체의 경쟁력 약
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무안공항을 아
시안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 슬롯과
운수권 이전 없이 두 항공사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인수 후 두 개의 독립 기업으
로 성장하고 있듯이, 대한항공과 아시아
나항공도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
항공)처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부 대책으로 무안공항 출발 국제선 추
가 개설, 활주로·여객터미널 등 시설 확
장, 면세점·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무안공항을 거점으

로 항공산업을 키우고 청년 일자리도 창
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여객 수
요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
느냐는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는 2025년 호남고속
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공항은
국내 13개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KTX가 진입하는 공항으로서 수요가 급
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무안-광주 공항
통합이 이뤄지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객 수요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는 거점 공항 육성
도 좋지만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무튼 이 후보의 이번
공약으로 개항 이후 15년째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
항으로서 위상을 구축하는 한편 국토 균
형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만
은 분명하다.

無等鼓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곳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연일 확
진자가 폭증하면서 그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매일 새로운 수치
가 기록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
해야 하는 봄이다. 이러한 때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발언이 있어 소개한
다. 지난해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코로나
19 위기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시작이
용되고 있는 것도 빙겨
져 솟아나오는 힘을 근
거로 하고 있으며, 이밖
에도 이를 상징하는 물
건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 역시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는 1일, 학교에
는 새 학기를 맞는 입학생이 있을 것이
고, 일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직장
인들도 있을 것이다.
모두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심하
게 지쳐 있다. 이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
시작할 때의 자신감과 희망에 대한 갈망
임을 떠올리고 성심을 다해 뛰어 보는게
어떨까. /김대성 사회2부 차장 bigkim@

스타트와 스프링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